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 동향과 시사점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 차 례

1.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 동향
2. 주요 수입 품목
3. 인도의 입장과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이 전년대비 4.4배 증가하며 러시아가 인도의 21위 수입대상국에서 6위 수입대상국으로 급부상함.
  - 인도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화학비료, 해바라기씨유로, 생활물가 및 핵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F(Fuel, Fertilizer, Food) 품목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제재로 인해 가격이 대폭 하락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서 대거 수입함.
  - 식량안보 관련 품목은 수입제재 대상이 아니나, 서방국가가 대러시아 수입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장벽에 직면한 가운데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량이 풍부한 러시아산 식용유와 비료 수입을 확대함.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가격우선 수입전략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 인도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주요 품목의 수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방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하려는 다자동맹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일부 해외 언론이 인도의 대러시아 제재 불참을 비판하고 있으나, 인도정부는 자국 경제 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주요 서방국가 정부는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경제·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서방국가와의 양자간 FTA 및 국제 기술협력과 4자 안보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다양한 외교 노선의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인도의 대외경제 및 외교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에너지 및 식량 교역 국가인 인도가 해당 분야에서 통상 및 외교 정책을 조정할 경우 글로벌 자원가격과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1.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 동향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인 361억 달러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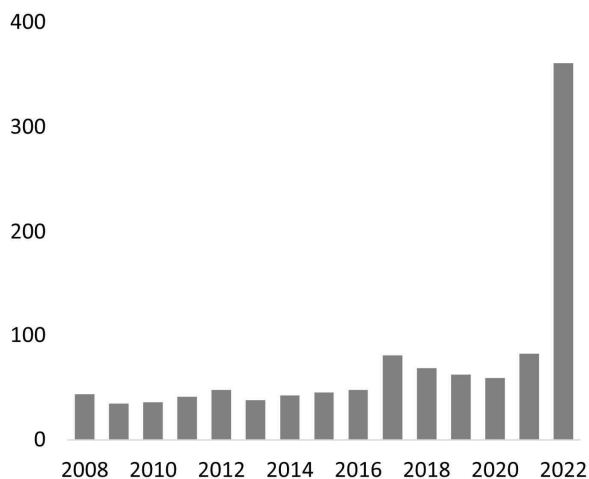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은 전년대비 338%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그림 1 참고).
  - 러시아가 인도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에서 2022년 5.0%로 급등하였고, 러시아는 2021년 인도의 21위 수입대상국에서 2022년 6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그림 2 참고).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은 주요 선진국의 대러시아 수입과 상이한 추세를 보임.
  - 2022년 미국의 대러시아 수입은 전년대비 51% 감소한 145억 달러를 기록함.<sup>1)</sup>
  - 2022년 하반기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816억 유로를 기록함.<sup>2)</sup>

■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 증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가하는 국가들로 기존에 수출되던 물량이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인도로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임.

- 러-우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2022년 2월 22일~2023년 2월 9일 기간 1만 1,307건 추가되었으며, 기존 2,695건과 합해 총 1만 4,002건에 달함.<sup>3)</sup>
  - 2022년 2월 22일~2023년 2월 9일 대러시아 규제 건수는 미국 1,948건, 스위스 1,777건, 캐나다 1,590건, 영국 1,414건, 유럽연합 1,390건 순으로 많음.

그림 1.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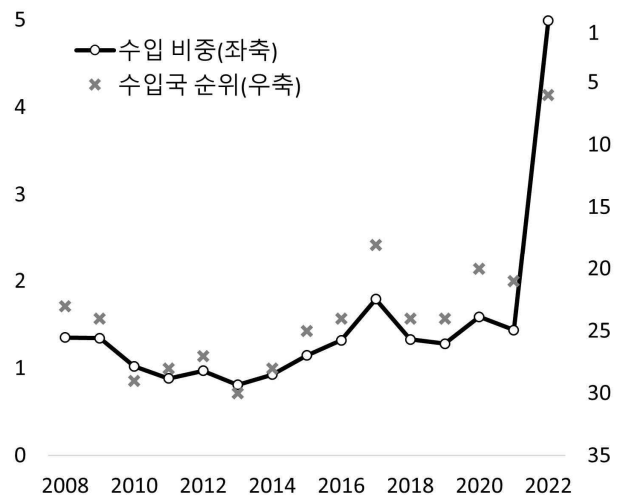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rade Statistics.

그림 2.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액 비중 및 순위

(단위: %, 순위)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rade Statistics.

1) United States Census Bureau - Trade in goods with Russia.

2) Eurostat - EU27 (from 2020) trade by SITC product group. 2022년 상반기 러시아로부터의 대규모 에너지 수입으로 인해 2022년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총수입은 전년대비 24% 증가함.

3) Castellum.AI. Russia Sanctions Dashboard.

- 주요 선진국은 대러시아 수출 및 금융 제재와 더불어 원유, 천연가스 등 러시아의 핵심 생산품 수입을 제재함 (표 1 참고).
  - 6대 주요 수입제재 품목 중 미국과 유럽연합은 5개 품목의 수입을 제재함.
- 인도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비개입 원칙을 유지하며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음.
  - 인도는 러-우 전쟁과 관련된 UN 총회 및 특별 총회 결의안 표결에서 2022년 3월 2일(A/RES/ES-11/1) 기권, 3월 24일(A/RES/ES-11/2) 기권, 4월 7일(A/RES/ES-11/3) 기권, 10월 12일(A/RES/ES-11/4) 기권, 11월 14일(A/RES/ES-11/5) 기권, 12월 15일(A/RES/77/229) 기권함.<sup>4)</sup>

표 1. 주요국의 대러시아 수입제재

| 구분   | 호주 | 캐나다 | 유럽연합 | 일본 | 스위스 | 영국 | 미국 |
|------|----|-----|------|----|-----|----|----|
| 원유   | ○  | ○   | ○    | ○  | ○   | ○  | ○  |
| 천연가스 | ○  |     |      |    |     |    | ○  |
| 석탄   |    |     | ○    | ○  |     | ○  | ○  |
| 금    | ○  | ○   | ○    | ○  | ○   | ○  | ○  |
| 금속   |    |     | ○    |    | ○   |    |    |
| 사치품  |    | ○   | ○    |    |     | ○  | ○  |

주: 2023년 2월 9일 기준임. ○은 제재 발표 및 도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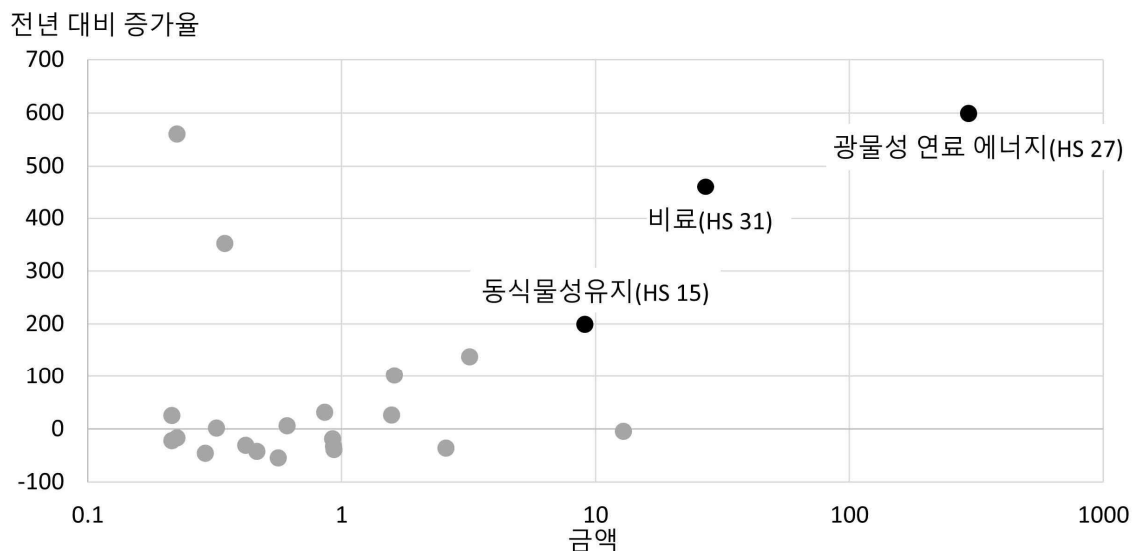
자료: Castellum.AI. Russia Sanctions Dashboard.

#### ■ 본고에서는 인도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의 동향과 수입전략을 분석하고자 함.

- 수입액이 크고 수입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 규모의 증가세가 높았던 에너지, 식량, 비료(3F: Fuel, Food, Fertilizer)의 주요 세부 품목을 분석할 예정임(그림 3, 4 참고).

그림 3. 인도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별 수입액 및 증가율

(단위: 억 달러 로그(x축), %(y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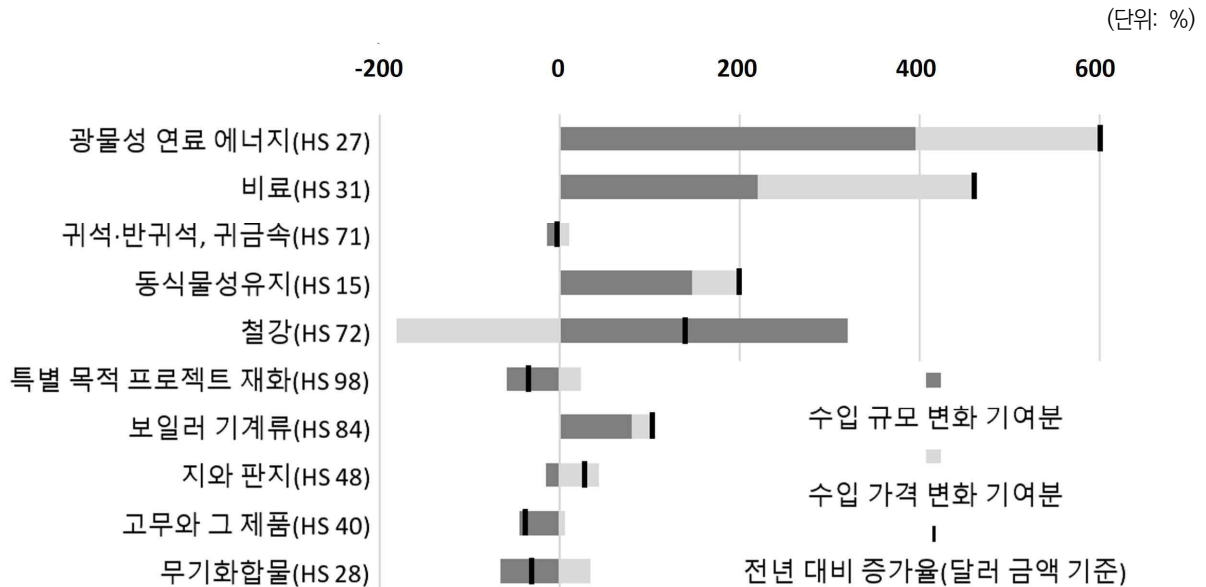


주: 1) HS 2단위 기준임. 2) 2022년 수입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 표시함. 3) 2장에서 분석할 품목은 검정색 점으로 표시함.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rade statistics.

4)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 Voting data.

그림 4. 인도의 대러시아 10대 수입 품목별 수입액 증가율



주: HS 2단위 기준으로 10대 품목이 인도의 대러시아 총수입의 98%를 차지함.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rade statistics.

## 2. 주요 수입 품목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광물성 연료 에너지(HS 27) 수입이 전년대비 599% 증가해 295억 달러를 기록함.
- 2022년 석유 및 역청유(원유, HS 2709) 수입이 전년대비 9.7배 증가해 223억 달러, 석탄 등 고체 연료(HS 2701)수입이 3.9배 증가해 42억 달러, 석유 및 역청유(조제품, HS 2710) 수입이 3.8배 증가해 28억 달러를 기록함.
- 2010년대부터 인도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 시작하며 수입액 순위와 비중이 각각 2012년 34위와 0.2%에서 2021년 10위, 2.5%로 증가함(그림 5 참고).
  - 2010년대 중반 베네수엘라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며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2018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비민주적 정부를 겨냥해 제재를 시작한 이후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함.<sup>5)</sup>
  - 2018년 미국정부가 2015년 대이란 경제제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핵합의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이란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가 다시 시작되자 2010년대 말부터 인도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가속화됨.<sup>6)</sup>
-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비중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해 11.1%를 기록하면서 러시아가 인도의 3위 에너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표 2 참고).

5) Pompeo, Michael(2019. 1. 28), "Sanctions against PDVSA and Venezuela oil sector,"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statement; Verma, Nidhi(2018. 3. 13), "India's oil imports from Venezuela hit lowest in over 5yrs," Reuters. 인도의 에너지 수입 중 베네수엘라의 비중은 2013년 8.2%(4위)에서 2020년 2.2%(11위), 2022년 0.04%(55위)로 감소함.

6) U.S. Department of State, Iran Sanctions. 인도의 에너지 수입 중 이란의 비중은 2013년 4.5%(8위)에서 2018년 7.9%(3위)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2022년 0.07%(46위)를 기록함.

그림 5. 인도의 대러시아 광물성 연료 에너지 수입액 비중 및 수입대상국 내 러시아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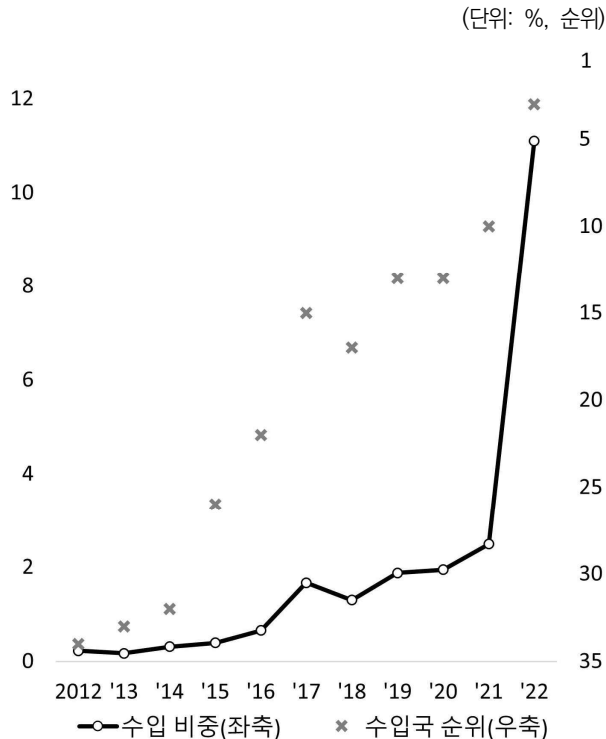


표 2. 인도의 주요 광물성 연료 에너지 수입대상국 및 수입액 비중

(단위: %)

| 순위 | 2018년         | 2020년         | 2022년       |
|----|---------------|---------------|-------------|
| 1  | 사우디 (14.3)    | 이라크 (15.4)    | 이라크 (14.1)  |
| 2  | 이라크 (13.6)    | 사우디 (14.0)    | 사우디 (13.5)  |
| 3  | 이란 (7.9)      | UAE (11.4)    | 러시아 (11.1)  |
| 4  | UAE (7.6)     | 카타르 (6.7)     | UAE (10.3)  |
| 5  | 나이지리아 (6.5)   | 미국 (6.5)      | 미국 (7.4)    |
| 6  | 호주 (6.1)      | 나이지리아 (5.9)   | 호주 (6.1)    |
| 7  | 카타르 (5.4)     | 호주 (5.3)      | 카타르 (5.5)   |
| 8  | 베네수엘라 (4.4)   | 인도네시아 (4.9)   | 인도네시아 (5.5) |
| 9  | 인도네시아 (4.1)   | 쿠웨이트 (4.2)    | 쿠웨이트 (4.2)  |
| 10 | 미국 (4.0)      | 남아공 (2.2)     | 나이지리아 (3.1) |
|    | 17위 러시아 (1.3) | 13위 러시아 (1.9) |             |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rad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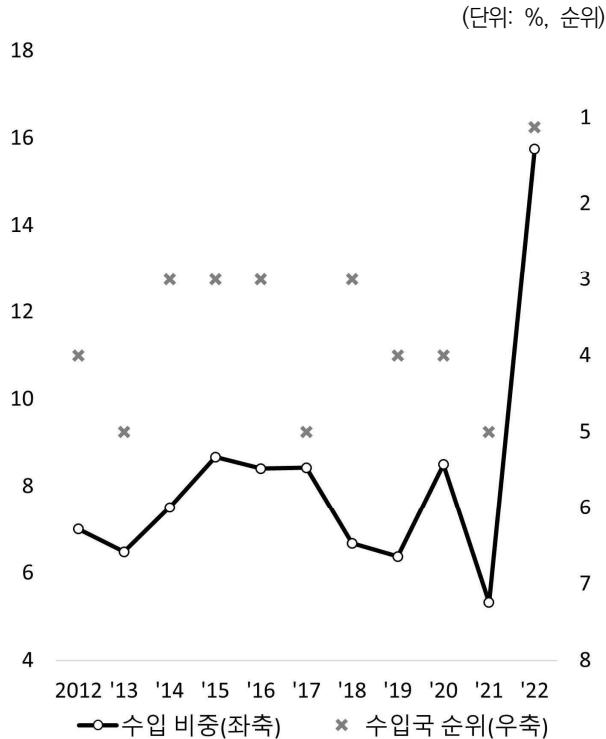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비료(HS 31) 수입이 전년대비 460% 증가해 27억 달러를 기록함.

- 2022년 광물성 비료 및 화학비료(HS 3105) 수입이 전년대비 5.3배 증가해 21억 달러, 질소비료(HS 3102) 수입이 10.4배 증가해 6억 달러를 기록함.
- 러시아는 2008년부터 매년 인도의 5대 비료 수입대상국에 포함되는 등 러-우 전쟁 이전부터 인도의 주요 공급처였으며, 2022년 인도의 총 비료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5.7%를 기록하며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등극함.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동식물성유지(HS 15) 수입이 전년대비 199% 증가해 9억 달러를 기록함.

- 2022년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HS 1512) 수입이 전년대비 2.6배 증가한 8억 달러를 기록함.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식이 줄고 가정 내 식사가 늘어나면서 팜유 수입이 줄어든 반면 해바라기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러시아산 동식물성유지 수입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인도의 동식물성유지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4.2%를 기록함.<sup>7)</sup>

7) Jadhav, Rajendra & Mei Mei Chu(2020. 7. 7), "Indian households shun downmarket palm oil, cutting demand in lockdow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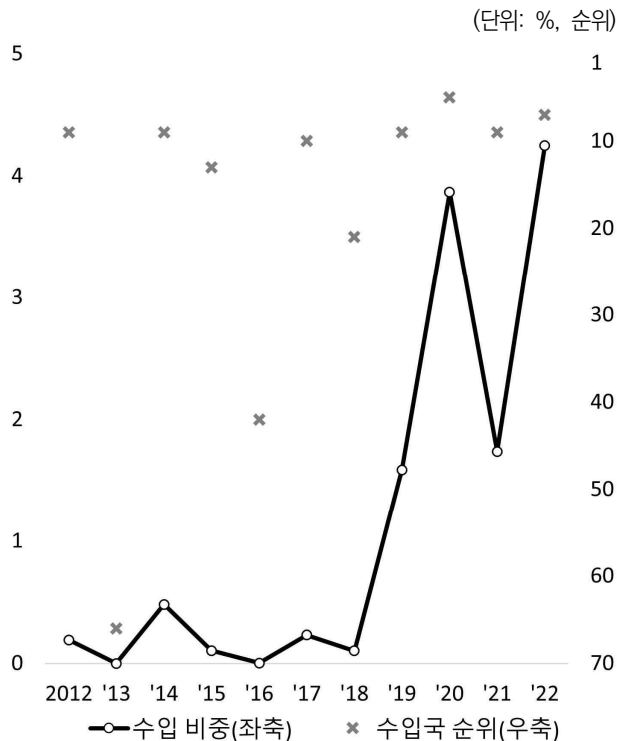
그림 6. 인도의 대러시아 비료 수입액 비중 및  
수입대상국 내 러시아의 순위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rade statistics.

표 3. 인도의 주요 비료 수입대상국 및 수입액 비중

(단위: %)

| 순위 | 2018년         | 2020년          | 2022년         |
|----|---------------|----------------|---------------|
| 1  | 중국<br>(27.4)  | 중국<br>(23.4)   | 러시아<br>(15.7) |
| 2  | 사우디<br>(15.0) | 사우디<br>(11.7)  | 사우디<br>(14.2) |
| 3  | 러시아<br>(6.7)  | 오만<br>(8.8)    | 중국<br>(13.4)  |
| 4  | 캐나다<br>(6.5)  | 러시아<br>(8.5)   | 모로코<br>(10.5) |
| 5  | 이란<br>(6.3)   | 모로코<br>(6.6)   | 오만<br>(7.3)   |
| 6  | 오만<br>(6.0)   | 캐나다<br>(6.0)   | 캐나다<br>(3.7)  |
| 7  | 모로코<br>(5.2)  | 요르단<br>(4.6)   | 카타르<br>(3.6)  |
| 8  | 요르단<br>(5.1)  | 이집트<br>(4.3)   | UAE<br>(3.5)  |
| 9  | 벨라루스<br>(3.3) | 인도네시아<br>(3.8) | 이집트<br>(3.0)  |
| 10 | 이스라엘<br>(3.0) | UAE<br>(3.5)   | 이스라엘<br>(2.7) |

그림 7. 인도의 대러시아 동식물성유지 수입액 비중 및  
수입대상국 내 러시아의 순위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rade statistics.

표 4. 인도의 주요 동식물성유지 수입대상국 및 수입액 비중

(단위: % 비중)

| 순위 | 2018년            | 2020년           | 2022년           |
|----|------------------|-----------------|-----------------|
| 1  | 인도네시아<br>(37.1)  | 인도네시아<br>(31.1) | 인도네시아<br>(25.9) |
| 2  | 우크라이나<br>(18.3)  | 아르헨티나<br>(20.9) | 말레이시아<br>(18.8) |
| 3  | 아르헨티나<br>(15.7)  | 우크라이나<br>(14.9) | 아르헨티나<br>(16.2) |
| 4  | 말레이시아<br>(13.6)  | 말레이시아<br>(14.8) | 브라질<br>(10.3)   |
| 5  | 브라질<br>(5.3)     | 러시아<br>(3.9)    | 태국<br>(5.8)     |
| 6  | 태국<br>(2.5)      | 브라질<br>(2.5)    | 우크라이나<br>(4.9)  |
| 7  | 싱가포르<br>(2.0)    | 네팔<br>(2.4)     | 러시아<br>(4.2)    |
| 8  | UAE<br>(1.6)     | 싱가포르<br>(2.1)   | 싱가포르<br>(2.1)   |
| 9  | 스위스<br>(0.7)     | 방글라데시<br>(1.5)  | 파푸아뉴기니<br>(2.0) |
| 10 | 스페인<br>(0.6)     | 스위스<br>(1.2)    | 네덜란드<br>(2.0)   |
|    | 21위 러시아<br>(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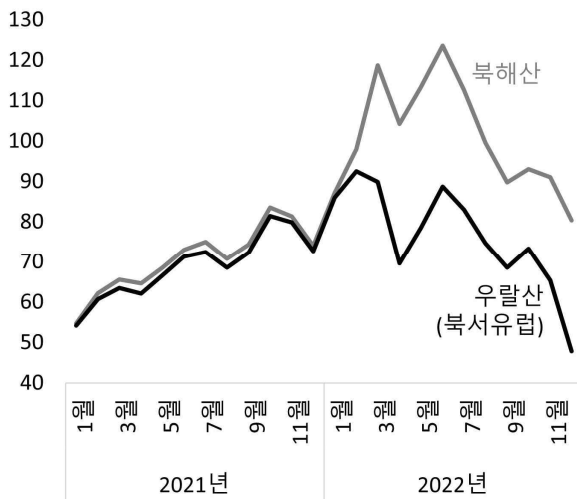
■ 인도는 2022년 초부터 서방국가의 수요 감소와 함께 가격 할인 폭이 커진 러시아 우랄산 석유에 대한 수입을 확대함.

- 2021년 기준 인도는 전 세계 원유 소비의 5%를 차지하는 3위 소비국이며, 2019~20년 인도 내 정유량 대비 원유 수입 비중이 89%로 대외의존도가 높음.<sup>8)</sup>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가 내 러시아 우랄산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수입제재가 시작되면서 북해산과 우랄산 원유가격 차이가 2022년 1월 1.1달러에서 12월 32.5달러로 확대됨(그림 8 참고).<sup>9)</sup>
  - 2022년 6월 유럽연합은 당해 12월부터 해상 수송 원유, 2023년 2월부터 정제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원유 및 정제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여나갔으나 인도가 낮은 가격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빠르게 확대한 결과 러시아의 총 석유 수출 규모는 타격을 받지 않았음(그림 9 참고).
  -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2021년 월평균 750만 배럴/일에서 2022년 월평균 780만 배럴/일로 증가함.

■ 서방국가들이 제재 대상이 아닌 식량안보 관련 품목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데 물리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반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러시아산 식용유 및 비료 수입을 확대함.

그림 8. 국제유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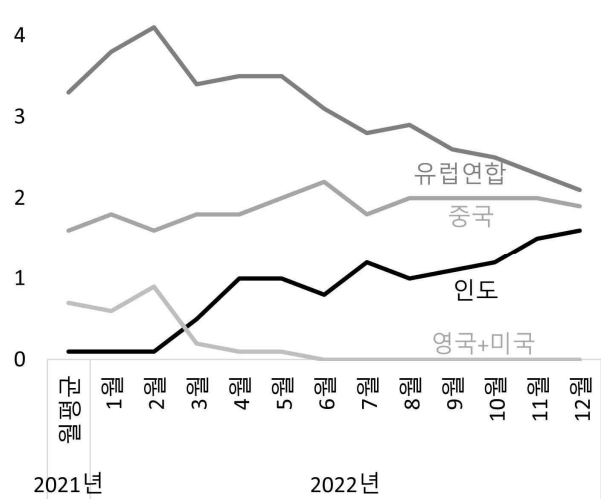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그림 9. 주요국의 대러시아 석유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배럴/일)



주: 원유와 석유 제품 포함.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8)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2021. 3. 22), "Reducing dependence on import of oil";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9) 다만 러시아의 주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에너지 수출 통계가 부족해 우랄산 가격 할인 규모가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Why the West's oil sanctions on Russia are proving to be underwhelming"(2023. 2. 1), *The Economist*.



- 인도의 농업은 2020/21년 총 고용의 39%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sup>10)</sup> 인도는 주요 곡물 및 채소 수출국이지만<sup>11)</sup> 식용유의 경우 수입이 국내 생산의 1.3배에 달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음.<sup>12)</sup>
  - 2021년 기준 인도는 전 세계 해바라기유(원유) 수입의 12%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임.<sup>13)</sup>
  - 인도는 높은 식용유 수입 의존도로 인해 러-우 전쟁 발발 초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식량보호주의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그림 10 참고).<sup>14)</sup>
- 인도는 2020/21년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비료의 수요 대비 수입 비중이 각각 28%, 45%로 비료의 대외의존도도 높음.<sup>15)</sup>
- 러-우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항만 사용이 제한되고 농업 창고 및 생산 기반이 피해를 입으면서 글로벌 식량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우려한 서방국가들은 식량과 비료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함.<sup>16)</sup>
  - 러시아는 2016/17~2020/21년 평균 전 세계 밀 수출의 20%, 해바라기유 수출의 25%를 차지했으며,<sup>17)</sup> 2020년 비료 수출의 15%를 차지함.<sup>18)</sup>
- 다만 △ 러시아와의 금융 거래 어려움 △ 흑해 지역 운송 인프라에 대한 불확실성 △ 러시아산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 러시아의 식료품 및 비료 수출장벽 등으로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수입이 어려워짐.<sup>19)</sup>
-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량이 풍부한 러시아산 식용유와 비료 수입을 확대함.
  - 러-우 전쟁 발발 초기에는 인도가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확대하였고,<sup>20)</sup> 2022년 하반기에는 러시아가 해바라기유 재고 해소를 위해 수출 가격을 낮춘 결과 해바라기유와 대두유의 가격 차이가 확대되면서 인도에서 러시아산 해바라기유 수입을 확대함(그림 11 참고).<sup>21)</sup>
  - 2022년 6월 기준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인산이암모늄 비료를 여타 아시아 국가에 적용된 톤당 1,000달러보다 낮은 톤당 920~925달러에 구매함.<sup>22)</sup>

##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가격우선 수입전략이 인도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고물가 시기에 인도가 적절한 통화정책을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자원을 수입한 전략이

10) CMIE Economic Outlook.

11) 김도연(2022),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Department of Food & Public Distribution: Oil division.

1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STAT - crops and livestock products.

14) Glauber, Joseph *et al.*(2022. 4. 13), "From bad to worse: How Russia-Ukraine war-related export restrictions exacerbate global food security," *IFPRI Blog*.

15) Bhattacharya, Sindhu(2022. 3. 11), "Explainer: How India is trying to reduce reliance on imported fertilisers," *Moneycontrol*.

16) European Council(2022. 6. 24). "European Council meeting (23 and 24 June 2022) - Conclusions"; European Council(2022. 6. 24).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dopts 9th package of economic and individual sanctions"; U.S. Department of Treasury(2022. 7. 14), "OFAC food security fact sheet: Russia sanctions and agricultural trade."

17) OECD(2022), "The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on agricultural markets."

18) United Nations(2022), "Global impact of war in Ukraine on food, energy and finance systems."

19) Elkin, Elizabeth *et al.*(2022. 6. 14), "US quietly urges Russia fertilizer deals to unlock grain trade," *Bloomberg*; Glauber, Joseph & David Laborde(2022. 11. 9), "How sanctions on Russia and Belarus are impacting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ertilizer," *IFPRI Blog*; Terazono, Emiko(2023. 1. 15), "Russian fertiliser export revenue surged 70% in 2022 as prices jumped," *Financial Times*.

20) "India buys Russian sunoil at record high price as Ukraine supplies halt"(2022. 3. 29), *Reuters*.

21) "India's sunoil imports rise to record as Russia-Ukraine fight for market share"(2023. 1. 27),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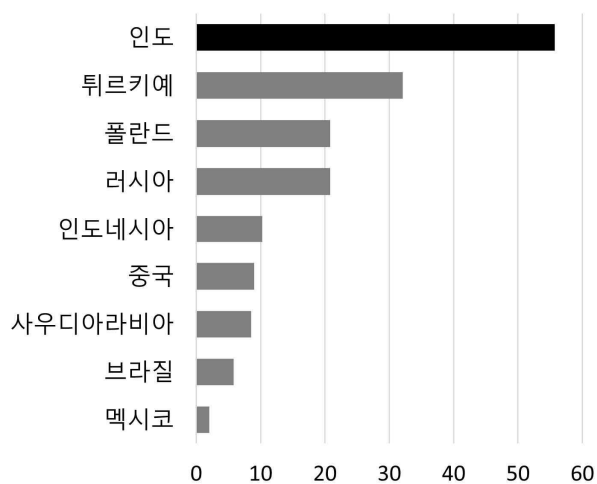
22) "Discounts lift Russia's fertilizer exports, becomes top supplier to India-sources"(2022. 11. 21), *Reuters*.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그림 12 참고).

- 인도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격히 늘어난 식량·비료·석유 보조금의 추가 확대를 통제함으로써 인프라 등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가능했음(그림 13 참고).
  - 인도정부의 자본 지출이 2021/22년 5조 9천억 루피(집행, 715억 달러)에서 2023/24년 10조 루피(예산, 1,211억 달러)로 확대되며 2년간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sup>23)</sup>

그림 10. 주요 신흥국의 농산물 수입 중 교역국의 수출규제 대상 비중

(단위: %, 칼로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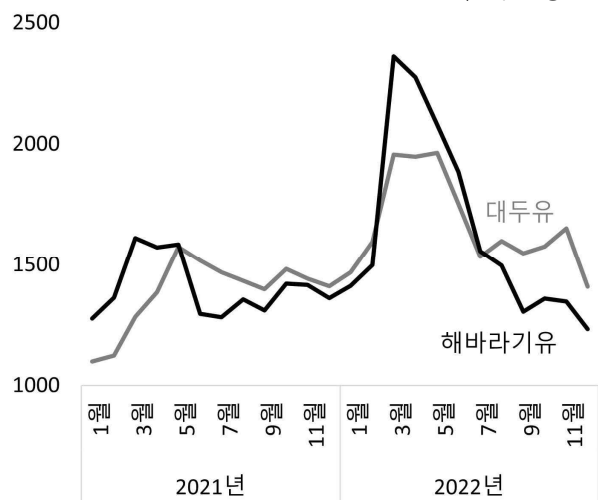


주: 2022년 초~4월 12일 사이 수출제재.

자료: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그림 11. 국제 식용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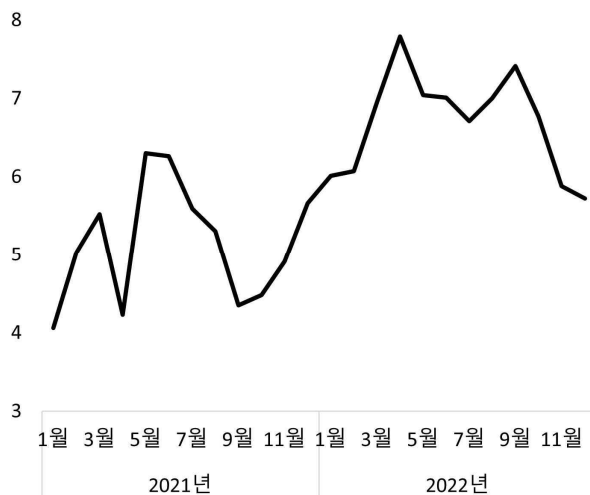
(단위: 톤당 달러)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그림 12. 인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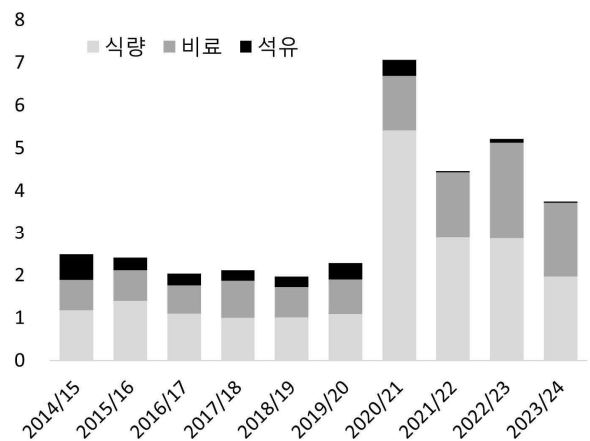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그림 13. 인도 중앙정부의 식량·비료·석유 보조금 규모

(단위: 조 루피)



주: 1) 인도 회계연도(4. 1~3. 31) 기준임.

2) 2022/23년은 수정예산, 2023/24년은 예산 자료임.

자료: Ministry of Finance.

23) PRS Legislative Research(2023), Union Budget 2023-24 analysis.

### 3. 인도의 입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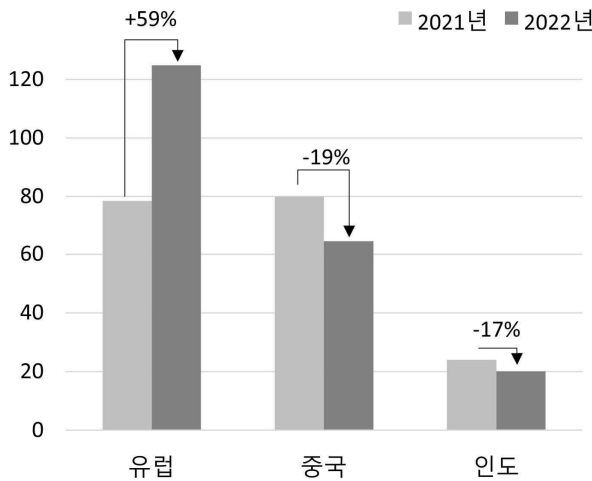
■ 해외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도의 대러시아 제재 불참 관련 비판에 대해 인도정부는 대러시아 수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며 해당 통상전략을 당분간 지속할 계획임을 암시함.<sup>24)</sup>

- 일부 해외 언론은 인도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불참이 무책임한 외교정책이며, 서방국가가 추진하는 대러시아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함.
- 인도정부는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을 고려한 에너지 및 식량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함.
  - 유럽연합이 자국민을 고려해 러시아 원유 수입제재에 예외 조항 및 유예기간을 포함하고 천연가스 수입은 제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도도 자체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서방국가들이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입제재 등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후 인도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함.
  - 2022년 유럽연합의 액화천연가스 수입이 대폭 증가한 반면 인도의 수입은 감소함(그림 14 참고).
- 세계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제재에 가담했다면 국제에너지 가격 문제가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더불어 일부 언론이 서방국가들과 인도의 에너지 수입정책을 다른 기준 및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이 여전히 인도보다 많은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강조함.
  - 2022년 3~12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석탄 매입대금은 1,379억 달러로, 이는 인도의 7배 규모임(그림 15 참고).
- 현재 인도-러시아의 관계를 과거 냉전 중 벌어진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특정 서방국이 파키스탄을 지지한 역사의 연결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함.
  - 러시아(구소련)는 전통적으로 인도의 주요 무기 공급처였던 반면 미국은 파키스탄의 주요 무기 공급처였음.
- 인도정부는 러-우 전쟁에서 어느 편도 아니라고 강조하며, 인권 차원에서 전쟁 종식을 촉구함.
  - 인도정부는 분쟁에 반대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 폭력 사태의 즉각적인 종단을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특정 국가의 동맹국으로 명시되는 것을 거부함.

24) "India buys less oil from Russia in a month than what Europe does in afternoon: Jaishankar"(2022. 4. 12), *The Hindu*; "India is not sitting on the fence", says External Affairs Minister S. Jaishankar"(2022. 6. 3), *The Print*; "If Europe cares...": Jaishankar silences West on Russian oil imports, calls India 'Independent'"(2023. 1. 3), *Hindustan Times*; "Lesser than Europe does in an afternoon: S Jaishankar on Russian oil deal"(2022. 4. 12), *NDTV*; "Price of oil is breaking our back", S. Jaishankar responds to question on imports from Russia"(2022. 9. 28), *The Print*; "Jaishankar once again smashes West on Russian oil import"(2022. 12. 7), *ANI News*; "Jaishankar defends Russian oil purchase amid U.S pressure: 'My moral duty to get best deal'"(2022. 8. 17), *Hindustan Times*; "'Let me correct your perspective': Union minister snubs journalist on India's Russian oil purchase"(2022. 11. 1), *India Today*; "S Jaishankar's rebuttal to a question on India buying 'tainted' Russian oil"(2022. 6. 5), *Business Times*; "Watch CNBC's full interview with India's Petroleum Minister Hardeep Singh Puri"(2022. 9. 6), *CNBC International TV*; "West didn't supply weapons to India but to Pakistan dictators": Foreign minister S. Jaishankar"(2022. 10. 10), *The Print*.

그림 14. 액화천연가스(LNG) 총수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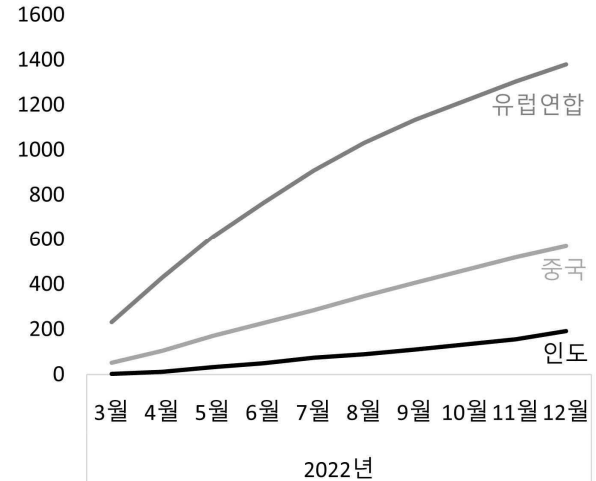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자료: Kpler.

그림 15.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석탄 매입대금(누계)

(단위: 억 달러)



자료: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Russia Fossil Tracker.

■ 해외 언론과는 달리 주요 서방국가의 정부는 세계 경제와 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고려해 인도의 대러시아 통상정책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인도정부의 주장이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 서방국 고위급 인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인사는 반박 및 비판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임.<sup>25)</sup>
- 서방국가 정부는 주요 원자재 수입국인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저가의 원유, 식량, 비료 등을 확보하면서 국제가격 상승압력을 완화한 점을 인식함.
- 2022년 12월 서방국가들은 러시아 유가를 배럴당 60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하였고, 이후 우랄산 원유가격에 대한 할인율이 더욱 커지며 인도의 제재 불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재정을 압박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sup>26)</sup>
  - 2022년 5월, 8월, 12월에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각각 약 760만 배럴/일로 유사했으나, 수출 수익은 199억 달러에서 178억 달러, 126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수의 서방국가가 인도를 주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점도 인도-러시아 관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sup>27)</sup>

- 인도가 열강간의 마찰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방국가의 포섭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도의 대외정책이 과거 비동맹주의(non-alignment)에서 다자동맹주의(multi-alignment 또는 all-alignment)로 전환되는 양상임.
- 2022년 인도는 호주와 FTA를 체결했고, 현재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sup>28)</sup>

25) Siddiqui, Maha(2023. 2. 9), "“Comfortable” with India approach on Russian oil, no sanctions: US,” *NDTV*.26) Stognei, Anastasia(2023. 1. 23), "Crude price drop and G7 cap rattle Kremlin,” *Financial Times*.27) Parkin, Benjamin & John Reed(2023. 7. 7), "India and UK to seal trade deal in ‘next few months’, minister says,” *Financial Times*.28) Cyrill, Melissa(2023. 1. 3), "Latest updates on India’s FTAs,” *India Briefing*.

### 글상자 1. IPEF 출범 후 1년간 미국-인도 협력

- 2022년 2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발표 후 1년간 미국은 다음과 같은 다자·양자간 포럼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함.
  - [청정에너지 및 기후] 미국은 2030년까지 500GW 규모의 비화석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인도의 목표를 지원하고 전략청정에너지파트너십(SCEP)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협력함.
  - [필수 인프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인도의 필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 인센티브 협정을 체결함.
  - [안보협력] 미국군과 인도군은 인도적지원훈련(TIGER TRIUMPH), 연합교환훈련(JCET), 합동군사훈련(Yudh Abhyas)을 단행함.
  - [해양안보] 미국은 인도가 주관한 연합해상훈련(MILAN)에 참여하였고, 양국은 미국-인도-호주-일본의 연합해상훈련(MALABAR)에 공동 참여했으며, 인도 해군은 다국적태평양훈련(RIMPAC)에 참여함.
  - [테러 방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267호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에서 인도가 악명 높은 국제 테러리스트를 지정·등록하는 과정을 미국이 지원함.
  - [재난대비인프라연합체(CDRI)] 기후 및 재난에 대비한 인프라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인도 주도로 설립된 CDRI에 미국이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함.
  - [민주주의정상회의] 미국은 인도의 민주주의정상회의 참여를 지원함.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23), "Marking one year since the release of the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 인도는 4자 안보대화(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및 안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음(글상자 1 참고).<sup>29)</sup>
- 2023년 인도는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핵심첨단기술이니셔티브(iCET),' 유럽과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설립함.<sup>30)</sup>
- 인도가 2023년 G20 및 상하이협력기구 의장국을 맡으면서 러-우 전쟁에 대한 주요국간의 협상을 조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sup>31)</sup>

■ 인도의 국내경제 목표와 국제관계를 고려하고 대러시아 수입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러시아가 당분간 인도의 주요한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

- 러시아가 인도와 영토분쟁 중인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거나 인도-서방국가 간 안보협력에 따라 인도의 무기 수입 다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인도가 러시아에 대해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대러시아 제재에 목시적·부분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있음.<sup>32)</sup>
- 2010년대 말부터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 인도와 중국 간 군사적 마찰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반서방 전선을 구축하고 무제한(no-limits)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9) Singh, Gurjit(2022. 6. 3), "The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30) European Commission(2023. 2. 6), "EU-India: new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o lead on digital transformation, green technologies and trade"; White House(2023. 1. 31), "FACT SHEET: United States and India elevat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iCET)."

31) Cohen, Roger(2022. 12. 31), "Russia's war could make it India's world," *The New York Times*; Gettleman, Jeffrey & Mujib Mashal(2022. 11. 6), "Could India help broker peace in Ukraine?" *The New York Times*.

32) Derek, Grossman(2022. 12. 9), "India upholds the 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But in its own way," Rand Corporation; Jacob, Happyymon(2022. 9. 22), "Russia is losing India: How Putin's Ukraine gambit doomed a long partnership," *Foreign Affairs*; Menon, Rajan & Eugene Rumer(2022), "Russia and India: A new chap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Quad, iCET, TTC 등 인도와 서방국가의 협의체는 안보를 주요 의제 다루고 있음.
- 인도가 러시아, 이란 등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교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경우 서방 국가와 인도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러시아는 인도정부에 자동차, 항공기, 기차 부품 등 500개 이상의 품목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함.<sup>33)</sup>
  - 인도가 이란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이란은 인도에 원유를 공급하는 협력 모델이 논의되고 있으며,<sup>34)</sup> 이란은 인도에 미국의 수입제재를 무시 및 회피하는 ‘러시아 모델’의 자국 적용을 요청함.<sup>35)</sup>

■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인도의 대외경제 및 외교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제문제에 대해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한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 및 개발 수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에너지 및 식량 교역 국가인 인도가 해당 분야에서 통상 및 외교 정책을 조정할 경우 글로벌 자원가격과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sup>36)</sup> KIEP

33) Shah, Aditi, Aftab Ahmed & Gleb Stolyarov(2022. 11. 29), “Exclusive: India asked by sanctions-hit Russia for parts for key sectors,” *Reuters*.

34) Mattoo, Shashank(2022. 12. 19), “Iran offers China-style strategic deal for India,” *Mint*.

35) Basu, Nayanima(2022. 9. 12), “‘Follow Russia model, resume oil purchases’ - Iran asks India to ignore US Sanctions,” *The Print*.

36) 백예인 외(2022),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가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